

사회

병원장들 브로커 고용 환자 유치

전남경찰, 직원 등 21명 적발... 치매·정신질환자 150명 불법 입원

환자 1명 유치에 사례금 월 10만원 지급

환자 유치 브로커를 병원 직원으로 고용한 뒤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를 불법적으로 입원시킨 병원장과 직원 등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브로커를 고용한 뒤 환자를 불법 유치한 광주 K병원장 L(48)씨 등 4개 병원장 4명과 병원 직원 Y(51)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환자 유치에 나선 M(38)씨 등 브로커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 병원장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를 직원으로 고용한 뒤 병원 내에 '사회사업부'라는 환자 유치 전담부서를 만들어 입원이 필요한 치매환자·정신질환자들의 보호자에게 접근,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150명의 환자를 불법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병원장들은 환자 1명을 유치할 경우 사례금으로 매월 10만원씩 건네는 등 브로커들에게 총 3억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은 특히 요양병원과 사회

복지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불어나면서 경쟁에서 밀리자 브로커를 고용해 환자 유치에 나섰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병원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브로커들에게 건넨 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입원 일자를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M씨 등 브로커들은 본인 부담금 할인 또는 교통상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보호자에게 접근해 환자를 유치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환자의 경우 자신들이 보호자 역할을 대신 해준다는 조건으로 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병원들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이익 수단으로 악용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알선 및 유인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를 불법 유치해 의료비 과다청구를 한 의료기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은 의료기관이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 주거나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목포~영암 도로변서 유사석유 43억대 판매

해남경찰 40대 구속

초고유가 시대를 틈타 유사석유 제조·판매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남경찰은 14일 수십억원대의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주유소 사장 N(46)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2009년 5월 26일부터 지난 2월 25일 사이에 목포와 영암지역 도로변에서 자신의 유조차(3000ℓ)를 이용해 화물차 등에 유사석유제품인 보일러 등유 295만ℓ(43억원 상당)를 경유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N씨는 이 기간에 유사석유제품을 노상판매 하다 두 차례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일부 운전자가 보

일러 등유를 넣고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카드 결제 후 유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한편 올 들어 이날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사석유 불법 제조·판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16건(26명)이다. 경찰이 압수한 유사석유만도 100만ℓ(경유 1ℓ 당 1700원 기준·17억원 상당)이다.

유사석유를 주유하면 엔진 고장으로 인한 대형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출력이 약 5%가 저하되며 연비가 18% 정도 감소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해남경찰 관계자는 "기름값이 오르면서 유사석유를 이용하려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각종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순천시 승용차 총동 2명 숨지고 4명 중상

지난 13일 밤 11시30분께 순천시 연향동 한국병원 앞 사거리에서 문도(25·여·수시)씨가 몰던 라세티 승용차가 마주오던 김모(여·35)씨의 투싼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라세티에 타고 있던 이모(20)씨 등 2명이 숨지고 두 차량 운전자 등 4명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씨의 음주 여부를 가리기 위해 체질을 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바다 추락 승용차 시신 인양

목포해경은 14일 오전 9시 30분께 목포시 북항 소령 선착장 앞바다에서 코란도 승용차와 운전자 소모(여·44)씨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정박 선박과 충돌 흔적이 있고, 차량 앞유리가 파손된 점으로 미루어 승용차가 추락했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영민기자 dss6116@

택시기사 폭행 미국인 강사 출국

경찰수사 중에... "한국 안 돌아간다" 전남대에 메일

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미국인 강사가 본국으로 귀국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대 언어교육원 원어민 강사 M(39)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달 중순께 미국으로 출국했다. M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1시30분께 전남대 기숙사 인근에서 택시운전기사 김모(52)씨를 시비 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날 9일 중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M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려다가 검찰의 지시에 따라 보강수사를 했다.

하지만 이 사이 M씨는 본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전남대 측에 보냈다.

경찰은 지난 2일 뒤늦게 체포영장을 신청해 수배조치했으나 피해자 김씨는 "수사기관의 허술한 대응으로 법의 심판이나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해당기관에 탄원서도 낼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M씨의 신병인도를 미국 측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백화점 납치강도상해 용의자 공개수배

광주서부경찰

경찰이 광주의 한 백화점에서 발생한 납치강도상해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수배했다.

광주서부경찰은 14일 "광주시 모 백화점 주차장에서 발생한 납치강도상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박모(29·사진)씨를 공개수배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일 오후 한 백화점 1층 주차장에서 쇼핑을 마친 뒤 차량에 타려던 A(여·39)씨를 납치해 폭행한 뒤 현금 2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교도소에 올려퍼진 클래식 선율. 광주시립교향악단은 14일 광주교도소를 방문, 임흥규 부지휘자의 지휘로 재소자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선사했다. 광주교도소는 재소자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명수배 강도 용의자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

강도 혐의로 경찰에 지명수배된 50대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유동 A모텔의 한 객실에서 김모(58)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객실 방바닥에서는 "방안을 어지럽혀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담긴 메모지가 발견됐다.

김씨는 지난 11일 북구 신안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지인 4명을 차례로

불러 흥기로 위협한 뒤 현금 2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쫓기고 있었다.

무작인 김씨는 지난 7일 동생을 찾아가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볼 낫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판,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하룻밤 새 차량 날치기 4건

광주 곳곳 돌며...동일범 추정

광주에서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하룻밤 사이에 4건이나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3일 밤 8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 한 음식점 앞에서 검은색 SM5 승용차를 탄 남성 2명이 길을 걷고 있던 장모(여·56)씨의 현금 30만원이 든 손가방을 낚아채 도주했다.

20분 뒤인 밤 9시10분께에도 서구 농성동 한 음식점 앞에서 같은 차량을 탄 남성들이 임모(여·50)씨의 현금 3만원과 휴대전화 1대 등 33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1시간 뒤인 밤 10시10분께에도 동구 충장로에서 검은색 승용차를 탄 남성들이 현금 7만원이 든 고모(여·58)씨의 손가방을 훔쳐 도주했다.

또 밤 10시35분께에는 남구 주월동 한 호텔 앞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현금 2만7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이모(여·51)씨의 손가방을 빼앗아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과 범행수법으로 미루어 4건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법직, 농림기술직 강의시간: 08: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4시간)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검찰직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출출출!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구원 합격특강반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명품 "강력단과" 영·국·행·경·농·국·연·법·화·재·경·공·화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합격 소망직 (전문)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4시간)
--	--	--	---	---	---	---	--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1월